

광주 지역 반려동물도 코로나검사 받는다

확진자 접촉으로 의심 증상 보이는 개·고양이 등 한정 사람 전파 사례·증거 없어 확진되면 14일간 자택 격리

광주지역 반려동물도 '코로나19' 검사를 받는다. 확진자가 기르던 강아지와 고양이가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면 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감염 여부를 판별한다는 것이다.

7일 지역동물단체와 보건당국에 따르면 광주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한 코로나 검사를 실시한다.

이는 지난달 국내 첫 반려동물 확진인 경남 진주국제기동원 집단감염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마리가 코로나19 양성반응이 나온 것에 따른 조치이다. 고양이의 양성 확인이후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기존에는 확인하지 않았던 반려동물 유무와 반려동물의 증상까지 확인하는 절차가 추가로 생긴 것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증상 발현 2일전(무증상 환자의 경우 양성검체채취 2일 전)부터 격리된 시점까지 약 2m 안에서 밀접 접촉한 적이 있거나 또는 같은 기간에 확진자의 감염성 분비물(감염자의 기침, 재채기, 점액·타액)에 직접 접촉한 사실이 있는 반려 동물 중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 검사를 받게 된다.

반려동물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은 발열 증상을 보이거나 기침, 호흡곤란, 눈·코 분비물 증가, 구토, 설사 등이다.

다만 검사 대상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되며, 검사 대상의 선정 또한 지자체 보건부와 동물위생시험소가 합해 검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우선 지자체 보건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을 확인하면 동물담당 부서를 통해 동물위생시험소에 통보를 한다. 이후 동물위생시험소는 해당 반려 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 노출 여부와 감염증상을 보이는

지를 관할 보건부서에 확인하고 최종 검사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반려동물 역시 사람과 마찬가지로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외출이 금지된다. 검사는 유전자검사법(Realtime RT-PCR)으로 사람에 대한 방법과 동

일하다. 검사결과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으면 외출을 금지하고, 14일간 자기격리를 원칙으로 한다. 코로나19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된다는 사례가 확인되거나 증거가 없기 때문에 별도 격리보다는 자택격리를 원칙으로 한 것이다.

하지만 동물단체 사이에서는 반려동물 코로나 검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려동물 검사를 실시한다는 점에서 혹시 코로나가 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된다는 잘못된 소문이 퍼져 유

기동물이 급증할 수 있는 탓이다.

동물보호단체인 '가치보듬'의 조경 대표는 "광주시의 반려동물 감염 조사는 인수 공통 전염병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면서 "밀접 접촉된 반려동물에 대한 감염 여부 조사는 필요한 조치지만, 최근 집콕으로 반려동물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 감소하고 있던 유기동물 수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락공원 설 연휴 폐쇄합니다

설 연휴기간인 오는 11일~14일 광주 영락공원과 시립묘지 등이 방역 차원에서 임시폐쇄될 예정인 가운데 휴일인 7일, 광주 북구 영락공원 추모관을 찾은 성묘객들이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소송비 1억5900만원 장학금 항목서 지출”

광주교육청, ‘횡령 혐의’ D학교법인 전 이사장 고발

광주교육청이 D학교법인의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을 감사한 끝에 횡령 등의 혐의로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을 투입해 진행된 D학교법인 종합감사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당지급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

이 학교법인은 교사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소송비용 1억5900여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했다고 시 교육청은 지적

했다. 또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다고 시 교육청은 밝혔다.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 사례도 43건(645만원) 지적됐다. 시 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이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 취임 승인을 취소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특히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에 검찰에 고발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장석웅 전남교육감 ‘부동의 전국 1위’

직무수행 평가 53.5% 지지 얻어...21개월 연속 선두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21개월 연속 직무수행 지지도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업무평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장 교육감은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진행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직무수행 평가에서 53.5%의 지지를 얻어 2019년 5월 이후 연속 1위를 지켰다.

2018년 7월 취임 뒤 출근 전국 최상위권을 유지해온 장 교육감의 지지율은 취임 2년7개월 째인 이번 조사에서도 부동의 선두자리를 유지했다. 지난해 10월부터는 4개월 연속 지지율이 올랐으며, 전국 교육감 중 유일하게 50%대 지지율로 2위(44.2%)와의 격차(9.3%p)를 더욱 벌렸다.

장 교육감이 새해 들어서도 높은 지지율을 이어가는 것은 일관되게 추진해온 ‘모두가 소중한 혁신 전남교육’이 지역민의 공감 속에 성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도 교육청은 풀이했다.

특히 최근에는 서울시교육청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진행 상황이 전국의 주요 언론에 소개되면서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은 “과분한 지지를 보내준 지역민들에게 감사드린다”며 “당장의 성과에 연연하지 않고 초심으로 돌아가 오직 학생을 중심에 놓는 교육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미래교육의 주춧돌을 든든하게 세우겠다”고 말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쌀쌀한 월요일 아침

최저 영하 5도... 낮부터 풀려

8일과 9일 광주·전남에는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광주지방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하한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며 8일 아침기온이 영하 5도 안팎으로 추겠다”며 “9일 아침 기온도 비슷한 분포를 보이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으나 낮부터 따뜻한 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겠다”고 7일 전망했다.

8일 아침 기온은 영하 5~0도·낮 기온은 1~6도 분포, 9일 아침 기온은 영하 6~0도·낮 기온은 6~9도 분포를 보이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기온의 변동폭이 크겠으니 면역력 저하 등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호남대, 청년일자리사업 진행

광주 광산구 사업기관 선정

호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2020년도에 이어 올해도 광주 광산구의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중소기업 청년 Job-School 취업연계 지원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억원 규모의 청년일자리사업을 진행한다.

‘중소기업 청년 job-school 취업연계 지원 사업’은 광산구의 우수 중소기업과 구직 희망 청년을 연결하고,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기업에게 월 18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참여 청년들에게는 교육과 워크숍 등의 역량강화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전년도에는 총 40여명의 청년과 31개소의 기업이 참여해 7억원 규모의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는 기존 참여기업과 청년을 연속 지원하면서 추가로 13명의 청년을 추가로 선발하기 위해 지난 1월 21일부터 모집공고 중이다. /채희준 기자 chae@kwangju.co.kr

음식물쓰레기 배출 방법은

광주 동구 자원순환해설사 홍보

광주시 동구가 설 명절을 맞아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배출방법’ 홍보활동에 나선다.

7일 동구에 따르면 2월 한 달간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배출방법’ 중점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자원순환해설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올바른 배출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활동을 진행한다.

2019년 5월 도입된 자원순환해설사 등이 공동주택, 원룸, 전통시장 등 각 마을 주거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게 동구의 설명이다. 특히 자원순환해설사들은 매주 2회 이상 남광주시장, 대인시장, 산수시장 등 전통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에게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정병호 기자 jusbh@

행정안전부 표창장 수상
MG대광새마을금고

창립40주년

“나에게 힘이 되는 대광새마을금고가 함께합니다.”

| | | |
|---------------------------------------|---------------------------------------|--|
| 아파트 분양자금 대출한도 최고 70% | 부동산 담보대출 대출한도 최고 80% | 햇살론 최고 2,000만원 <small>(근로자 최고 1,500만원)</small> |
|---------------------------------------|---------------------------------------|--|

★ 정책 및 금융환경 변화에 따라 한도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과금 자동이체(기본 선물 증정) | 카드 체크기 무상 설치 | 각종 공제(암 상해 화재 보험) 취급 | 문화센터 운영(탁구 요가 노래)

| 본점 | 062)222-5851
| 서남지점 | 062)227-1532
| 지산지점 | 062)222-1431